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9, 2021 Vol. 793

‘보수 우위’ 美 대법, 낙태 합법 판결 뒤집나...구두변론 ‘치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 다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1일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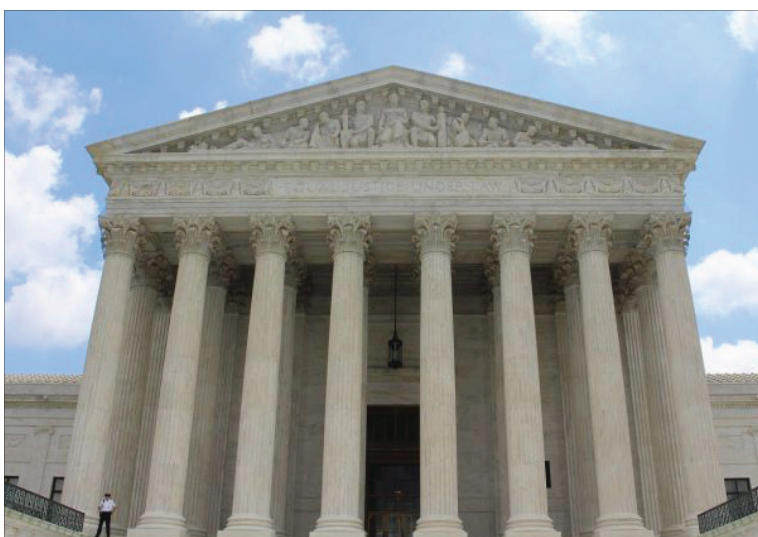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선 낙태 합법화를 두고 2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낙태 반대 측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반면, 허용 측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연방대법

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져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은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미 대법원 ©Pixabay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론 이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대법관들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지, 아니면 임신 15주까지 낙태를 제한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이나 7월 초 쯤에 나올 전망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판결이 뒤집히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 개신교인 51% “유대인은 여전히 선민”



통곡의 벽에 모인 유대인들의 모습. ©이주섭 목사 제공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51%가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그레이 매터 리서

치와 종교기반 통신기관 인피니티 콘셉트는 공공으로 ‘유대인 연결: 복음주의자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1,000명의 복음주의 개신교

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응답자의 19%는 “확실하지 않다”고, 19%는 “유대인은 선택받은 다른 민족으로 대체됐다”고, 10%는 “유대인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 2%는 ‘기타’ 견해를 가졌다.

또 70세 이상 응답자의 59%는 “유대인은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반면, 40세 이하 하는 44%만이 이에 찬성하는 등 세대차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우선순위를 1부터 5까지로 측정했는데, 1은 중요하지 않음

을, 5는 매우 중요함을 각각 의미했다.

응답자의 48%는 “나의 자선 행동에 있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음주의 응답자 중 20%가 “이스라엘 충성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데 매우 높은 순위를 두었음을 의미했다.

인피니티콘셉트의 마크 드레이스타트 CEO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복음주의 공동체는 친이스라엘과 친유대성을 동시에 지닌 단일 집단으로 보는 경

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양성을 수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신학적 관점, 자선 기부, 지원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양성의 모자이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어느 때보다 유대 공동체를 포용하고 있고, 유대 공동체는 복음주의 공동체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며 “두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 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고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 나눠요”

‘2021 사랑의 나눔 캠페인’ 개최, 12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사랑의 패키지 전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가 성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지난 3일 교회가 속한 지역의 웨스트민스터 경찰국(Westminster Police Depratment)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데 이어, 오는 18일(토)에는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 주차장에서 지역 한인들과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쌀, 라면, 김, 초코파이,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이 담긴 500여 개의 사랑의 패키지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며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의 나눔 캠페인’ 행사는 준비한 사랑의 물품 패키지가 모두 소진 되는대로 마감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893-1652



2021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대강절(Advent) 찬양 이야기

“This was the most glorious day that I have yet seen” John Wesley, Journal 25 January 1736.

위 글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John Wesley 1703-1791)가 1736년 1월 25에 쓴 일기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존 웨슬리가 그날 생사의 갈림길 현장에서 동생 찰스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와 함께 경험했던 암울했던 하나의 큰 사건을 바탕으로 쓴 일기로 그들은 이 때의 사건이 자신들의 제2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한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날 거대한 폭풍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채 메시아의 도래를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심에 존 웨슬리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위와같이 “나의 삶에 있어 오늘과 같은 최상의 영광스러운날은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의 나라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해가 지지않는 나라” 라고 하며 자부심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루터보다 100여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

행하다 처참히 화형을 당한 제코출신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2-1415)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극히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1736년 당시 대서양을 향해하던 가운데 나타난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메시아로 인한 소망을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서로가 너무 대조적이었던것을 보게 된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Advent) 절기를 보내며 이에 관련된 대강절 찬양들을 드리고 있다. 교회력으로 가장 처음 시작 되는 절기인 이 대강절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성탄절(12-25)을 전 해서 4번의 주일을 지키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어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지켰던 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오는 중요한 절기 이다.이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찬양속에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요 저술가인 레리 크랩 (Larry Crabb 1944-2021) 이 쓴 “영적가면을 벗어라” 마지막 챕터를 보면 그가 피부암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던 가운데 고백하는 고통스런 치유를 서술하고 있다.

그가 60대 초반에 피부암 진단을 받고 어깨와 등에 항암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받는과정 속에 발견한 이야기였다. 항암연고를 바르며 치료를 받던 어느 주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소견은 “그 고통은 항암치료제에 대한 반응으로 통증으로인한 고통이 물론 엄청 심하겠지만 그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며 지속적인 고통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첫째는, 피부에 암이 퍼져 있는 곳에 잠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앞으로 길고 치명적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피부에 암 덩어리가 모두 다 타버리면 그 밑에 아기의 살과 같이 새 살이 돌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것을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 했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40장 3-5절을 볼 수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

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40장은 이사야 전체 66장이운데 후반부의 시작으로 전반부에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재앙을 기록한것에 반해 이들에게 내릴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예언을 하는 시작부분이다. 이 이사야 40: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팔레스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아울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한 예언이기도 하다 (요1:23)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장애로 인한 고통이 수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골짜기, 산,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C.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있는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데 있다” 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것이다.

올 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계속되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찬양들을 드리고 예배하며 그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 아울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복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안에 머물게 만드신다는 또 하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때 우리는 바른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윤임상 교수



월트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구세군나성교회, 저소득 가정에 성탄절 선물 전달



LA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나누는 구세군 한인교회 ©기독교일보

매해 성탄절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장난감을 배포해 온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가 올해도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웹사이트 www.saangeltree.org에서 직접 선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구세군 나성교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12월 16일(목)까지며 장난감 배포는 12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세군 나성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푸드 박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세군 나성교회가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성금으로 동참하길 원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래로 문의 하면 된다. 주소: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0-0714 김동욱 기자

오레곤벤엘장로교회 제10차 벤엘차세대리더장학금 수여식



3만 스퀘어피드 규모로 최근 완공된 오레곤벤엘장로교회 비전 채플

오레곤벤엘장로교회(담임 이돈하 목사)는 지난 주수감사 주일에 제10차 벤엘차세대리더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레곤벤엘장로교회는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성적, 재정 보조, 신학생, 재능 분야 등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레곤벤엘장로교회는 오래된 주님의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첫 수여식을 가진 이후 지난 10년간 총 10만 4천 달러의 장학금을 총 104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이돈하 목사는 “지역의 크리스천 인재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장학금 사업을 섬긴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서도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 신실하고 실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준 장학위원들과 당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레곤벤엘장로교회는 앞으로 디아스포라의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해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선교 역사 잘못 해석돼... 주님 역사로 돌이켜야”

기드온동족선교회가 30일 오전 줌(Zoom) 등 온라인을 통해 '제8회 글로벌복음통일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기도 용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주님께 복음적 기도를 드리며 고통과 힘들 속에 있는 북한 동족들에게 하루빨리 하나님의 손길이 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후 박 목사는 ‘도적질 된 역사를 복음통일-주님의 역사로(요한복음 10:10-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북한선교를 하면서 북한의 동족들에게 약탈을 11년 넘게 나눠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의구심이 있었다. 분단의 원인과 북한선교의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가 말씀을 전했다 ©유튜브 캡처

어려움은 의식주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됐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선교의 역사를 되짚어 봤는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선교의 역사가 잘못 해석되고, 도적질까지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주님의 역사로 돌이켜야 하는 그

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선교와 관련해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이며,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1919년 3.1운동이다. 세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 하

지 못했고 외부세력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아픔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1950년 6.25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4가지 일을 겪고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들을 했다”며 “1885년, 고종임금 시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해방을 맞이한 1945년까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수는 1,500명이다. 이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생각해보게 되며 반성하게 됐다”고 했다. 박 목사는 이어 “선교사들이 다녀간 후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총선거가 자유와 복음이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선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 198명이 함께 모여 첫 국회를 시작하는 날, 이윤

영 목사(당시 종로구 국회의원)가 참석해 첫 국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첫 국회 이후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선교한국의 중요한 토대를 완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고 북한 동족들을 도우며 복음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교 후 기도회 참석자들은 북한동족, 복음통일, 디아스포라연합과 다음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다. 최승연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사:
오대영목사(세수전도원), 주성영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목사(수원대), 송경원목사(복음선교연구원), 권준호목사(중앙대), 신명진목사(서울대), 유관기목사(서울대), 김진호목사(KCC), 김동진목사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공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족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2022년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혜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lalmiss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2년 1월 28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2년 2월 25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추후발표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33

“겨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연말 시즌이 되었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 단체에서는 겨울철 단기 선교팀들이 12월팀과 1월팀으로 나뉘어서 겨울철 단기 선교를 위해 열방에 나갈 준비를 한다. 필자에게도 많은 선교팀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기도 제목들을 보내 온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내가 북방으로 12월 MIT 팀에 합류하여 구 소련에서 독립된 이슬람권 작은 나라들을 몇 나라 방문할 예정이다. 큰 딸 내외도 중동 지역의 나라에 유스팀들을 인솔하고 다녀오게 된다. 필자는 12월에 2주간 멕시코 남부지역 치아파스와 오약까지 지역의 정글지역 단기선교를 준비한다. 독자가 이 글을 읽으실 때면 필자는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득 필자의 막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여름방학 때 약 3개월간 HSM(고등학생 선교사)로 레바논 난민캠프 사역을 했던 때가 생각난다. 아비의 눈에 어리지만 한 막내 딸 아이가 미국 전역에서 모인 프래 팀원들 10여명과 팀을 이뤄갔었다. 날마다 새벽제단에서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던 장면도 그렇다. 다녀온 딸아이는 복귀한 후에 한동안 눈이 벌겍게 통통 부어서 다녔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다. 현지에서 만났던 자신이 담당했던 어린이들 생각에 그리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 후 막내는 매년 중동의 나라들로 단기선교를 갔고 급기야 대학 때에는 휴학하고 SM(대학생선교사)으로 1년 반 이라크 선교를 하고 왔다. 막내는 우리 온 가족의 선교 부흥에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 필자가 목회를 했으므로 우리 자녀들은 매년 교회에서 실행하는 남미 단기선교를 참여하며 자랐다. 학생 시절에 스스로 훈련받고 선교비를 일년 내내 모아서 장기적인 이슬람권 선교에 참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 막내가 지금은 직장인이 되어 미국이 좁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사역하는 청년이 되었다. 동생의 선교 열정에 영향을 받은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청년시절 선교 헌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어느날 가족에게 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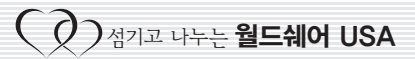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이상훈 목사
멕시코중앙로회신학대학장

하더니 열심히 훈련에 참여 한 후 1년간 이집트 SM을 다녀왔다. 그 후 선교단체에서 동역을 하던 청년을 만나 지금은 부부가 되어 각각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 디렉터와 어린이 사역 디렉터로 섬기면서 장기 선교사 사명을 받고 훈련 중에 있다. 두 딸들의 오빠인 필자의 아들은 멕시코 학생 선교사 출신인 전도사 자매를 만나 EM 목회자로서 두 내외가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 뿐이다. 필자 내외도 선교사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서 있으니 가족들 모두 이제 다 흩어져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문득 필자가 가족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 선교팀 중에 한 가족 전체가 다 같이 겨울 선교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많아진 것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이다.

우리 가족처럼 대부분 그 가정들도 제일 먼저 어린 자녀가 선교에 참여하면서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까지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그 가정은 서로 다른 선교지로 향한다. 부부도 각기의 다른 팀으로, 자녀들도 모두 각지의 다른 선교팀에 합류하여 같은 날 일시에 떠나게 된다. 참고로 선교단체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아마도 올성 단절과 연말은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부부도, 딸 아이 가정도 각 나라의 선교지에서, 막내는 타주에서, 아들 내외는 교회 사역을 하며 분주히 성탄과 연말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우리 가족이 쓰임 받는 것에 더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

연말연시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지로 향하는 미주 전체에서 훈련받은 600여 명의 단기선교팀 사역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기원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신약성경의 배경 “유대 당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 활동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의 전통 신앙인 유대교(Judaism)와 외래문화인 헬레니즘(Hellenism)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세와 세속적 문화의 영향으로 유대 사회는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몇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당파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열심당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Pharisees)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부활, 구원, 정결 등 종교적 의무와 교리적 핵심에 관한 관심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무 즉, 음식 제한, 절례, 십일조, 기도, 금식 등에 아주 엄격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서는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서 이런 종교적 의무를 행함으로써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 있는 분파로 부상했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 정도 활동했다고 알려집니다. 바리새인은 완전한 지배계층은 아니었지만, 실력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비판하는 대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유로운 구약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둘째 에세네파(Essenes)파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전(主前) 130-주후 70년경 시기에 광야에서 고립된 집단생활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철저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에세네파인들은 광야에서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과 철저한 단절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세네파 가운데 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리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콤란이라는 마을의 콤란공동체는 보다 엄격한 율법공동체였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세례자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헤롯당원(Herodians)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가의 권좌를 지지했던 왕가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스렸던 헤롯 가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헤롯 가문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헤롯 왕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가족 중 2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Antipas)가 그의 형제 필립(Philip)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북동쪽 지역을 각각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우리가 4복음서에서 만나는 헤롯 추종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지지자들입니다.

넷째, 열심당(Zealots)입니다. 이들은 1세기 유대 사회 상황에서 사회 현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당파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문자 그대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열심당원들 중 일부는 시카리(sicari)라고 불렸는데, 이는 ‘단검을 가진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실제로 자객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사회 현장에 뛰어들어 행동으로 애국과 애족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은 BC 6년 유다가 로마

의 호적 명령에 반대해 일으킨 애국운동으로 시작된 당파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유명한 마사다 전투에서 몰사할 때까지 항전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주목표로 삼아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해방자로 오해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 열심당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다섯째는 사두개(Sadducees)파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와는 가장 공통성이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부유계층이었고 귀족계층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일을 행했으며, 공회에서 지도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카비 혁명으로 세운 하스모니아 왕조(the Hasmonian dynasty)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헤롯당파와는 거의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신약에 14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묶어 기술합니다. 이들은 사상적으로 전혀 융합될 수 없는 당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핍박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회심한 바울을 폭행합니다(행22:2-3).

학자들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반대파들의 기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콤란 문서와 랍비 문서에서는 사두개파를 비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할 뿐 핵심 주제로 사두개인의 행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 10. 10. ~ 2022. 01. 08.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 2022. 01. 08. 까지 by January 08, 2022

-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 02. 23. ~ 02. 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5)

“북한 첫 교회 소래교회, 남한 첫 교회인 새문안교회 개척에 기여”

1882년 존 로스는 이 조선어 성경을 조선에 은밀하게 보내기 위해 그의 최초의 제자인 이응찬에게 그 막중한 그 임무를 주었다. 이응찬도 원래 밧짐 장사꾼이었기에 그 무거운 성경 집을 지고 약 300여 킬로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지금의 단동의 압록강가의 주막집에 집을 풀어놓고 그 성경을 안전하게 운반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 나룻터와 그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그 성경 밧짐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주막집 주인이 수상한 집을 풀어보고는 그 책이 금서인 것을 알고 관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일부는 강에 던져버리고 일부는 불에 태워버린 것이었다.



소래교회의 1895년 모습.

그 당시 조선의 국경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자를 감시하고 조사를 엄격히 하였었다. 이에 대해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쓴 연암 박지원은 그의 저서에 이같이 기록하였다. “웃을 풀어 해치기도 하고, 바짓가랑이를 훑어 내려 보기도 하며, 이불 밧짐과 옷꾸러미가 강 언덕에 너울거리고 가죽 상자와 종이곽이 풀밭에 어지럽다. 삼단계로 수색이 진행되는데, 일 단계에서 색출되면 곤장을 치고, 이 단계에서 색출이 되면 귀양을 보내며, 삼 단계에서 색출되면 목을 베어서 장대에 내 걸음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했다.”

이응찬은 낙심을 하고 다시 신앙 문광서원으로 돌아와 성경 운반의 실패를 존 로스 선교사에게 보고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다.

“성경이 던져진 압록강 물은 조선인들에게 생명수가 될 것이요. 성경이 타다남은 재는 조선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존 로스 선교사는 두 번째로 동일한 임무를 의주 출신 백홍

준에게 주었다. 그도 성경을 짊어지고 압록강가에 와서 안전하게 성경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한지로 만들어진 그 성경을 다 풀어헤쳐서 허잡한 종이인 것 처럼 풀어헤쳐서 집 속에 구겨놓고, 나머지는 그 성경 한지를 꼬아서 지게 끈처럼 만들어 의주 국경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마침내 의주 자신의 고향에 당도하였다. 그는 과감하게도 의주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전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사실상 의주가 최초의 조선어 성경의 도래지였고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형성된 지역이었다.

이를 소문으로 들은 한성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언더우드와 마펫, 게일 등은 오히려 변방의 주에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었고 이곳까지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1889년 4월 27일에는 한성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곳 소식을 듣고 자

신의 신혼여행지를 의주에 와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기독교인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한성에서 미국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언더우드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세례문답에 선발된 기독교인 33명을 배에 태워서 압록강 중국 측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 집단 세례에 대해 한국 교회사에서는 일명 “한국의 요단강 세례”였다고 기록하였다.

의주 지역은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경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 되었고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 존 로스 선교사의 5인의 제자 중에 4명이 의주 출신이었고 초대 조선 교회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백홍준과 한석진과 서경조, 서상륜도 이곳 출신이었다. 이 의주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흥이 있기 이전에 복음이 최초로 발원된 곳이었다. 이처럼 의주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로 황해도 소래로 확산

된다. 그리고 한성까지 그 영향을 주게 된다.

최초의 한글 성경이 백홍준에 의해 의주에 전해졌다. 그로인해 그곳에 자생적 기독교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만주의 동관교회에 있던 존 로스 제자인 서상륜도 자신의 고향 의주로 돌아왔다. 그도 역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소식이 관가에 알려지자,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는 체포되어 옥중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친지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하여 동생과 함께 친척이 있는 황해도 장연군 소래(송천) 마을로 피신하여 1883년 5월 16일 초가집에서 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과 장소가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공인된 교회로 기록되었다. 이 교회의 창립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2년 전이었으므로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조선 기독교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워졌다는 데에 교회사적 의미가 큰 것이다.

그 두 형제는 그 마을에 열심히 전도하여 55호 주민 중에 50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사실상 그 마을이 신앙공동체가 된 것이다. 서형제들은 한학에도 능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한학과 한글을 가르쳐 그 문맹 마을을 문명 마을로 개화시켰다.

이들은 만주에서 밧짐 장사를 하며 다녔기에 청나라에 대한 많은 견물의 체험이 있었기에 교회 개척 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청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며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며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 들려주자,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의 복음화가 결실되었다.

이 두 형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성을 비롯해 곳곳에 다니며 전도를 하였다. 그러한 사역에 저들이 가장 필요되는 것이 성경이었기에 서상륜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조선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존 로스는 6천 여권의 조선 성경책을 제물포로 보내었다. 이 당시 조선은 일본과 미국과 통상 관계가 성립되어 세관이 있었고, 세관장이 청나라에서 파견한 초대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llendorff, 1848~1901)였다. 또한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다. (계속)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Advertisement for Inex Auto Collision Center, featuring a ca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quality body work and life time warranty.

Advertisement for Puente Hills Hyundai, featuring a ca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fleet manager and sale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21 Midweek Christian University Fair, list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IRUS, Misung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others.

'오미크론 폐쇄' 인천 A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며 사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폐쇄된 인천 미추홀구 A교회가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인 5일 사태 이후 첫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 1부에서는 교역자들만 예배당에 나와 담임 B목사가 예배를 인도했다. B목사는 설교 전 기도에서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 달라"며 "저희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해 달라"고 기도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말라기 3: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B목사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시리라 말씀하셨다"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 온전한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했다.

특히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세상을 잘 섬기는 교회로 달려왔지만, 일련의 오미크론 사태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예전에 방송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욱했지만, 이제 우리가 대상이 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 피해를 입은 인천 A교회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A교회 유튜브

B목사는 "우리가 첫째 해야 할 것은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다."라며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목사라고 하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목사는 "오미크론이 전염력

이 빠르다. 자세히 들었는데, 러시아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다 마스크를 써서 관찰으리라 생각했지만 몇 명 감염자들이 있다"며 "좋은 소식은 오미크론 증세가 그렇게 독하지 않아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처럼 심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며 "강림절 기간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

대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먼저 담임목사로서 사과 드리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과드리겠다. 방송에서 담임목사가 사과했다고 하는데, 전에 공식 사과라기보다 SNS에 올렸다가 비아냥대는 댓글들이 올라와서 내렸다"며 "이처럼 우리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부 예배에서도 B목사는 "800명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 번 예배가 나뉘어서 진행된다는 걸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사실만 보도되면 좋겠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고, 기도할 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분당우리교회, 코로나19로 일만성도 파송운동 시작 3개월 연기



이찬수 목사가 5일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2021년 12월 중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시작하고자 계획했지만,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예비 담임 목사님 29명과 의논 후 3개월 연기했다"며 "변수가 없는 한, 4월 첫째 주일을 분립의 날로 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지난 3일 공개한 '일만성도 파송운동 4차 중간보고'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이찬수 목사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간 성도들이 주로 했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분당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송

운동 4차 중간보고는 향 후 일만성도 파송운동 진행 과정과 궁극한 점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는 지난 5월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2가지 의미와 2가지 꿈, 2가지 기도제목은 공유한 3차 보고 이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내년 4월 첫째 주까지의 '일만성도 파송운동' 진행은 교구별로 교회 개척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비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찬수 목사는 "내

년 3월까지 아직 4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서서히 체계를 갖추면서 조직 교회로서 완성해 가면서,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해 주시는 때가 될 것"이라며 "예비 담임목사님들이 일대일 심방부터 다락방 단위 등 할 수 있는 대로 방향성과 준비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제는 모든 권한을 또 모든 책임을 예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셔야 한다. 지금부터는 부교역자나 교구 목사로서가 아니라, 담임목사로서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순장님이나 성도님들이 예비 담임목사님과 질문과 대화를 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 목사는 '분립개척 교회로 갔다가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분당우리교회로 돌아와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가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답도 모르겠다. 딸이 방금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아빠에게 '이

혼하면 나 받아줄 거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겠느냐. '절대 안돼, 언제라도 받아주마' 둘 다 어렵다"며 "또 하나, 인생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예벰에셀의 은혜'로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 목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한다. 교회가 혼란과 분열, 갈등 없이 눈물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예벰에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개입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진심으로 성도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 피차간 기도로 유무상통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스물아홉 예비 담임목사님들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한동대, 신임 총장에 한동대 최고성 전 가천대 국제부총장 선임



최도성(69·사진) 전 가천대 국제부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이사장 이재훈)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최도성 전 가천대 국제부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은 지난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동대 국제화부총장, 가천대 국제부총장 등을 역임한 뒤,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EU, “‘크리스마스’ 대신 ‘홀리데이’ 사용” 내부 문서 논란



유럽연합 깃발. ©Pixabay/Greg Montani

EU가 포용성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대신 ‘홀리데이’(holiday)를 사용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EU는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포용적인 대화’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으나, 바티칸 및 이탈리아 정치인들의 비난을 받아 이를 철회했다. 약 3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

는 “모든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으며,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날짜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다. 예민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타

자니(Antonio Tajani) 전 유럽의회 의장은 이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포용은 EU의 기독교적인 뿌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 평등위원회 헬레나 달리(Helena Dalli)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이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더타임스는 “미스터(Mr), 미즈(Ms)와 같은 용어들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엠엑스’(Mx)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대명사를 ‘선호’하는지 물어선 안 된다. 이는 성 정체성이 개인의 선호라고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물어보라. ‘당신의 대명사는 무엇인가?’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리 위원장은 이번 지침의 철회 소식을 알리면서 더 많은 작

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침을 만든 처음 의도는 위원회 직원들이 더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무 안에서 대화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신념을 지닌 유럽인들에게 유럽 문화의 다양성과 유럽위원회의 포용적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침이 이러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성숙한 문서가 아니고, 위원회의 모든 평등 기준에 맞지 않다. 이 지침은 분명히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침을 철회하고 이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마테오 렌지 전 이탈리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황당하고 잘못된 문서였다. 공동체는 그 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위협이 아닌 가치”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파키스탄 무슬림 폭도, ‘신성모독’ 했다고며 스리랑카인 화형

총리 “수치스러운 사건... 모든 관련자 엄중 처벌”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 남성이 이슬람 폭도들에 의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이슬람 정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폭도들이 시알콧시에 있는 스포츠용품 공장 관리자인 프리안타 쿠마라라는 이름의 스리랑카인을 구타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어 일부 군중은 불타는 시신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였고,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다.

한 지역 공무원은 인도 뉴스 통신사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TI)’와의 인터뷰에서 쿠마르 씨가 꾸란 구절이 새겨진 파키스탄 강경파 정당 ‘테흐리크-이-라바이크(이하 TLP)’의 포스터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슬람 정당 포스터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쿠마르의 사무실과 인접한 벽에 붙어 있었고, 공장 노동자 몇 명이 그가 포스터를 떼어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보았다”며 “폭도 중 일부는 TLP 정당의 운동가이자 지지자들”이라고 밝혔다.

이후 폭도들은 그를 공장에서 끌어내 혹독하게 고문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의 시신을 불태웠다.

쿠람 사자드 지역 경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연루된 120명을 체포했

다고 밝혔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알콧 공장에 대한 자경단의 끔찍한 공격과, 스리랑카 관리자가 산 채로 불에 탄 사건은 파키스탄의 수치”라며 본인이 “수사를 감독 중이며,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법률지원 정착센터(LAAS)’의 나시르 사이드는 파키스탄의 정부가 폭력

사태와 신성모독법 남용에 대해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사이드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처음 공개된 잔인한 형벌은 끝난 게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신성모독법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에만 수십여 명이 신성모독법에 의해 기소됐

며, 이들 중 다수에 대해 살해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자주 남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짓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 법은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시아파, 아마디아스, 힌두교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앞서 파키스탄 출신 기독교인인 아시아 비비는 2018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 전까지 사형을 선고받아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판결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또 2014년에는 기독교인 부부 세자드와 사마 마시가 꾸란 페이지를 찢었다는 거짓 혐의를 받아, 폭도들에 의해 벽돌 가마에 갇혀 산 채로 화형됐다.

강혜진 기자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문 양장

목사 (목회)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름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양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양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오고 있다.

서울양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복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복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랑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리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길문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쿨문출판사 • 홈페이지 www.gilm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02-747-1004(내)



서머나 교회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8-11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약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게 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진이 잘 일어나서 그로인해 도시가 잿더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곳을 먼저 침공하여 전술, 전략적 요새를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 서머나 항구도시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했는데 그 후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페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울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 성'입니다.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쪼개서 나무의 수액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액에서 추출해 낸 것이 몰약입니다. 이것은 방부처리를 하는 용도나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몰약 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에서는 예수님을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에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아포스톨로스)를 예수님이 오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목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교회의 사명 따라 다양하게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했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적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상당히 부요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훼방하고 대적,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을 붙이심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 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하십니다.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시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했는데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만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니키라는 12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황제를 신성시하여 황제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단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내게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며 당당히 말했고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수령님, 제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수령님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고 말하며 사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그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A.D 155년에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A.D 105년경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 할 줄 모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적 각오로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두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폴리갑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당당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강준민 칼럼

조용히 이기는 지혜

조용히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감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중요하지 않은 일, 또는 필요하지 않은 때에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감추었다가 정말 중요한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필립 스테퍼필드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식을 감추는 것이 지혜임을 말해줍니다. “결코 빠거리고 주재님께 나서지 마라. 너의 지식을 마치 시계처럼 주머니에 넣고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꺼내지 마라.” 자기를 포장해서 들어내야 살아남는 지금 시대와는 역행하는 것 같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혜란 원리와 같아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용히 이기는 지혜의 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왜 절제가 마지막인지 궁금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절제란 성령의 열매를 맨 마지막에 기록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

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절제(節制)란 정도(正道)를 넘지 않도록 힘을 알맞게 조절하여 제어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힘을 아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워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딤후 3:3). 절제를 통해 온유한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절제란 자제력입니다. 절제란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절제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침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침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예절입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켜야 할 선을 서로가 지켜 줄 때 관계가 오래 유지 됩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지켜 주어야 할 선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 선을 지켜 줄 때 관계는 안전하게 유지 됩니다. 사랑의 기술은 절제의 기술입니다.

절제란 기차가 철로 안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게 됩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기차는 철로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철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철로를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

리 삶의 경계이며 지켜야 할 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집입니다.

절제란 자기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절제 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소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거나 모든 생각을 다 말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여과(濾過) 없이 드러냄으로 생깁니다.

절제란 표현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모든 감정 가운데 필요한 감정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올 때 감정과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절제력은 성령님 안에서 훈련

을 통해 형성됩니다. 절제는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절제력에 있습니다. 절제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훈련합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훈련하는 사람은 조용히 이기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이기는 지혜를 배워 참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성교
박상원 목사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은 정말이지 내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니 현실은 답답하고, 따르지 않자니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호통치며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두려웠다.

나는 매일 근심으로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좋아볼 것 같았다.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말씀을 들을 통로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은 당시 내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었다. 당장 오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더러 하나님은 탐욕스럽게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니, 내게 하나님은 그야말

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존재였다.

하나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산에다 묻고는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차디찬 땅을 굶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족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

폐하리라”(레 26:22).

철모르는 아이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체로 변하여 무더기로 차디찬 땅속에 묻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험하지 않고는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어찌 알 수 있으랴. 가슴이 갈거리 찢기는 듯한 그 고통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오호라 이 재앙이 내게 미칩은 무슨 연고입니까? 나의 불순종함에 하나님께서는 일곱 배의 재앙으로 대항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타까운 내 마음을 굶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 가는 시체와 씨름하던 그 해 6월, 그날도 우리는 밭에 김을 매러 갔다. 사실 모두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밭에 몽개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위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농사를 지어 바치라고 성화를 해대서 목숨이 남아 있는 한 포전에 나오긴 하지만, 호미를 쥘 힘도 남아 있지 않으니 무슨 농사가 되겠는가. 사람들은 수령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탄했다.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
-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시용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금속 원은 재질인가, 보철인가 있는가?
- 방사선 진단을 위해 흉안영역에 방사선 노출이 있는가?
- 강령이 불투명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임역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tr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하나님의 은혜로 올림픽 장로교회를 설립하시어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정장수 목사님의 은퇴 및 2대 담임 이수호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올림픽 장로교회

3대 취임합니다
정장수 목사 · 이수호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2021년 12월12일 [주일] 오후4시

계속해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일동 -

1대 담임 정장수 목사 2대 담임 이수호 목사

올림픽 장로교회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213-387-1700 E olympicch@gmail.com 건물 뒷편의 지하주차장 이용해 주세요.

무엇으로 먼저 채우겠습니까?

‘존 맥’과 ‘토마스 데이빈 포트’가 쓴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양은 결국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스포츠나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을 만들어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넘치는 인터넷 정보 속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가짜 정보가 너무 쉽게, 많이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진짜가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보다 항상 더 빠르게 전파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마음을 선점하면 실제로 좋은 것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넘쳐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대형 스캔들과 배신과 미움의 소식들과 불법이 가득할 것이기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분별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놀린 자를 진리로 자유케 했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따랐고 참된 소망으로 삶이 변화되었으며 구원의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다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이란 완고함, 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마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욕심과 편견과 고집으

로 가득 차 있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이유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13:2) 이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가 예수님의 세족식 사랑도, 최후 만찬의 은혜도 그에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들인 생각대로 행동하므로 결국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롤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본토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시고, 또 밤하늘의 뭇별을 세

어보라 하시면서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가나안의 상황은 기근이었고, 몸은 아이를 낳기에 이미 늙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채웠더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었고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것만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육신의 죄성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주시는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당 얼마 버십니까?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매니저에게 들은 말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주말에 월급을 주면 그 다음날 이유 없이 결석하는 직원들이 많아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늘 종업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때를 생각해서 비상 대기조로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간당 급여를 올려주기도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스카우트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를 구단에서 연봉을 올려 스카우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레이커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연봉이 3천140만 달러이고 후원 계약을 합치면 약 1,000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연봉은 4,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계산을 했는데, 제임스 선수는 잠을 자는 한 시간에도 약 4,000불, 메시 선수가 약 5,000불 이상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잠을 자도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재미있는 계산이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계산이라고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

니라, 퇴근 후 집에서 생활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심지어 잠자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다음날 출근하여 일하는 능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무실에서 업무 능력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여가를 즐기며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 등 총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까요?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각자의 교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계산법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그 시간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과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는 우리나라 속담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밥 먹듯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바가지는 어디에선가 분명히 샌니다. 한번 은혜받고 감동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건강한 습관이 배기까지 받은 은혜를 모든 삶의 구석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격입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부교역자 청빙

필그림선교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한 Full-Time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분은 선교적 교회 리더십 훈련을 받으며 사역하게 됩니다.

- 모집분야: 목양 및 선교적 공동체 사역 (2명)
- 지원자격:
 -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분
 - 정규신학교 M.Div 졸업
 - 미국 내에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사진 첨부,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 포함)
 -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 및 개인 소명문 포함)
 - 신앙 고백서
 - 설교 영상 2편 (필요에 따라 예배 설교 요청)
 - 추천서 2부 (추천인 연락처 기재)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제출 서류 마감일: 2021년 12월 18일 (토)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E-Mail: HR@NJPMC.ORG 문의: HR@NJPMC.ORG

필그림선교교회

(텍사스 휴스턴)함께 사역할 신실한 동역자를 찾습니다.

Full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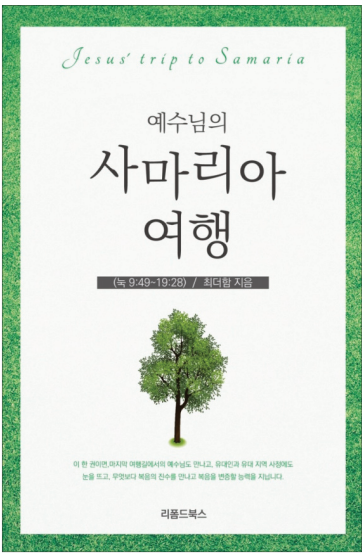
자격과 사명

- 예배 중 동시통역 (한국어를 영어로)
- 찬양사역 예배인도 (설교자와 협력)
- 담임목회 협력 (KM과 EM사역 연결 역할)
- 전화: 832-366-1103
- 이메일: jhoyee@hotmail.com

텍사스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최더함 박사 저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사마리아, 예수님의 매우 특별한 여행”



수많은 적대와 반대에도 불신자들에 복음 전파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주님 사랑 공생애 중 사마리아 여행. 많은 시사점·가르침 제공

“예수님의 공생애 중 사마리아 여행 부분은 많은 감동적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깝게 느끼고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로 목회자들을 가르치며,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며 설교하는 저자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식적이거나 미숙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며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중 행적과 설교를 책에 담았다. 주로 누가복음 9-19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담은 책은 서론까지 총 4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처해보지도 않은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놀랍다.

책에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비

롯해 15장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19장의 구원받는 삭개오까지 담겨 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이 오늘날까지 2천 년간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공생애 사역을 마감하기 직전 한번, 총 두 번이나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 첫 방문은 잘 알려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장면이다.

이와 관련, 저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오히려 더 함께 계시기를 간청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더 머무셨다”며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이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방문이 책에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9-19장 본문이다. 이에 대해 “흔히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예수님은 ‘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누가복음 9:50)’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복음이 알려져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모두 복음을 전파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신 것”이라며 “그렇다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이행해야 하는 절대 의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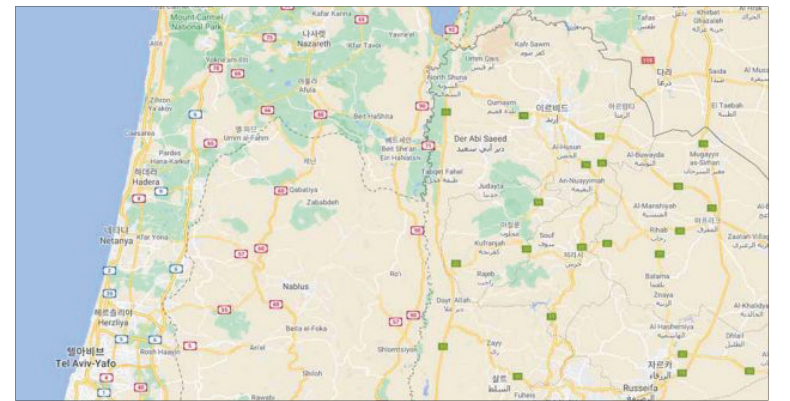
그러나 1편 ‘예수님을 거부하다(누가복음 9:51-56)’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대해 인위적 노력으로 설득하거나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행위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전도가 아니라 끌어오

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할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사마리아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가르침을 준다”며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속 깊은 마음을 감지할 수 있고, 수많은 적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향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책 중간중간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물과 그림 등을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도서 구매는 직판만 가능하다(문의: 02-941-2019).

이대웅 기자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 ©구글맵

[신간] 가나안에 거하다

두란노서원이 이진희 목사(미국 달라스 웨슬리 연합감리교회)의 신간 <가나안에 거하다>를 출간했다. 가나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자가 구약 성경의 광야와 가나안을 묵상하며 집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을까, 나일강의 풍요를 누렸던 모세가 누

보산에 올라가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답을 본 도서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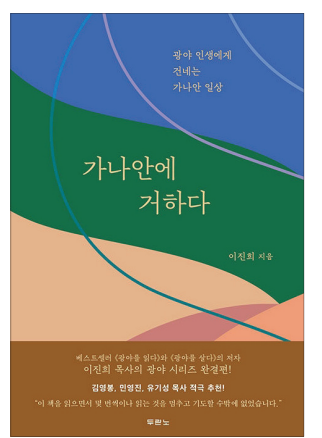
저자 이진희 목사는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가나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요소를 초월해 영적 세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광야가 십자가라면 가나안은 부활이다. 십자가의 반대가 부활이 아니듯, 광야의 반대도 가나안은 아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마찬가지로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 래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맞는지 이 책을 통해 알기 소망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거한다고 해서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땅마저 럽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아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저자 이진희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달라스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생명의 삶>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성서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광야를 살다>, <광야를 읽다>, <익숙한 성경 낱설게 읽



기),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읽는 창세기>,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앞서는 멋진 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Tel: 213-739-1022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영화 <지옥> (2)

반종교적인 기독교 해석 드러난 연상호 감독의 <지옥>

변덕스럽고 원칙 없이 사람 죽이는 <지옥> 속 초월자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이상한 존재 인식해 하나님 사랑과 계시, 구원 사역... 모든 믿음 헛것 여겨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 본질적 차이 보지 않고 일방적

◆대상화된 신: 인간의 상상으로 신을 그려내고 설명하기

<지옥>이 그려내는 신, 혹은 초월자는 변덕스러운데다 원칙이 없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사람을 특정해 지옥으로 보낼 예고고 하고, 예고한 시간이 되면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이를 표현하는 CG는 촌스럽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데, 이는 초월자로부터 신비감을 제거하려는 연상호 감독의 의중을 반영하는 듯하다.

신이냐 초월자를 설명하거나 표현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대상화라는 난관에 부딪힌다. 인간의 부족한 감각능력이나 지성으로는 초월자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갖 비유와 상징들을 총동원해 신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려는 고달픈 노력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신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숭앙하는 마음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그나마 인간이 제시하는 표상이나 상징을 가지고는 진정한 신의 모습에 전혀 다다르지 못하며, 오로지 그 편린이나 그림자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겸손의 심령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모든 고등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특징이다.

오늘날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서도 간혹 신을 표현하려는 작품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신의 신비로움과 절대적 초월성을 존중하면서 대상화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다.

근래 개봉된 작품으로는 <오두막>(The Shack, 2017)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영화 속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방식은 물론 종교의 삼위삼체론을 연상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인데, 대신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상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반면 <지옥>은 신비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접근 불가능성을 수긍하는 고등종교들의 태도를 비틀어 활용함으로써, 신이란 이해할 수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존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각 고등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은 분명 신비 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관된 성품이나 속성을 가지고 인류에게 스스로를 알리고 있다. 반면 <지옥>이 그려내는 신은 스스로를 계시하거나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일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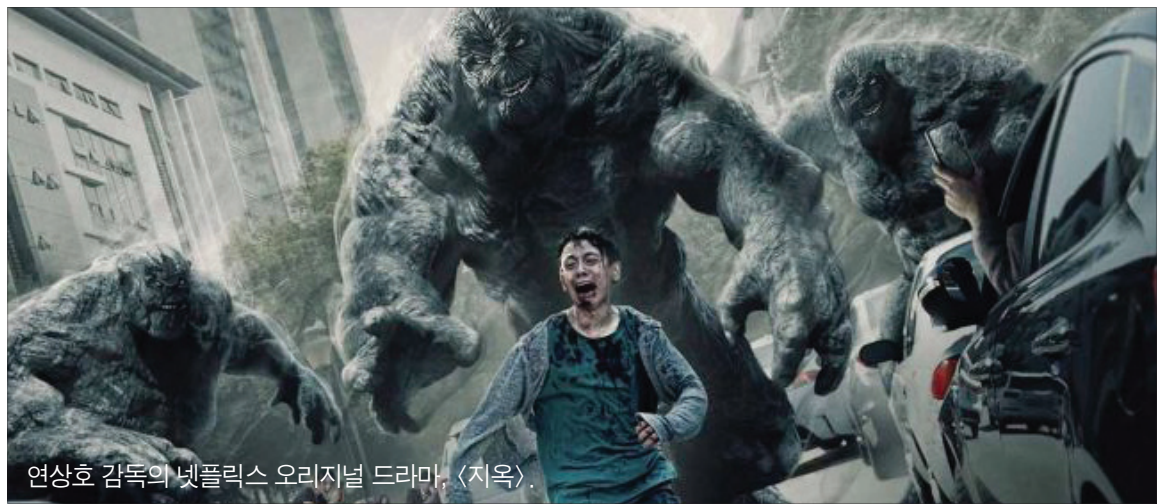
이는 연상호 감독의 일관된 반종교적 작품 성향을 드러내는 일면이다. 반종교란 모든 종교의 기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종교가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무종교의 태도보다 종교에 더 적대적이다.

무종교에서 종교나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의 요소지만, 반종교에서는 종교나 신앙이 우리 삶을 방해하고 기만하는 요소, 박멸해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희화화된 신앙: 답없는 신의 행사와 무지몽매한 인간의 해석

<지옥>에서 엮여오는 이러한 태도는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의 반종교적 인간 이해를 수용, 계승하는 진보 계열 사상 집단이나 정치 집단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포이어바흐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인간이 대상화한 기독교의 하나님이 실은 인간 자신의 이상적인 속성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을 신이라는 관념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무신론적으로 변형해서 계승한 마르크스는 인류 진보의 최종 단계에서 종교는 사라지고 진정한 진리를 열어 밝히는 철학이 득세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물론 마르크스가 말하는 철학은 유물론적 변증법에 기반을 둔 자신의 사회철학,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그의 말은 종교적 믿음이나 신앙 전반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 소멸을 바라는 반종교적 태도가 집약된 발언이다.

드라마 <지옥>에서 신과 종교 양측을 대하는 연상호 감독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 이 작품 속에서 지옥에 빠질 것을 예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초월적 존재자들은 모두 혐오스럽고 영성 없는 CG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것들의 행동 의도나 특성 또한 종잡을 수 없을만큼 난잡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작품이 대상화한 신이란 흉물스럽고, 폭력적이며, 어떤 법도 없이 인간의 삶에 난입하는 신이다. 그러면서도 그 뜻이나 속성을 제대로 계시하지 않는다. 신비가 아니라 제멋대로의 임의성 속에 빠져 있는 신인 것이다.

결국 그 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인간 편에서 사이비 종교의 형태를 빌어 시행하게 된다. 이것이 <지옥>이 설명하는 종교 탄생의 메커니즘이다.

이로써 비단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통 고등종교로 인정받는 기독교 역시, 그 시작

은 막무가내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신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의도와 속성을 부여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지옥>은 기독교의 원죄 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계시 및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설교한다.

지극히 염세적인 삶의 태도로 일관하며 한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을 이해하고 재단하는 사이비 종교 ‘새진리회’ 창시자 정진수(유아인 분)는 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회화화로 볼 수 있다.

신의 뜻을 온전히 파헤친 선지자의 이미지가 정진수라는 인물에게 투사되고 있다. 부귀나 권력에 대한 집착 없이 우수에 찬 태도, 늘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의 삶은 작품 속에서 존경스럽다기보다 가련하고 허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그의 삶을 존경하는 것은 오로지 무지몽매한 대중이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이들, 민혜진 변호사(김현주 분)나 비밀결사 ‘소도’의 구성원들은 새진리회의 기만적 본질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다.

정진수의 ‘지옥행’ 이후 새진리회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는 2대 교주 김정철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행적을 권력과 부의 재료로 변질시켰던 중세의 부패한 교황들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별다른 교의적·신학적 근거가 없는 교령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단시하고 형벌했던 그들의 행적은 작중 대한민국 권력을 손에 쥐고 폭주하는 새진리회의 김정철과 그를 따르는 사제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특히 ‘시연(지옥행 형벌 집행)’ 예고된 이들을 모조리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찍고 그 가족들마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각은 중세 이단 재판의 악행을 그대로 현대 배경 속으로 옮겨온 듯하다.


어설피고 흉물스럽게 생긴 신의 집행자들을 통해 성사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신의 행사에 제멋대로 일관된 원칙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이비 종교의 발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광신적 호응은 결국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여타 종교들도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상호 감독 식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풀이법은 분명 편향적이다. 사이비 종교들의 거짓됨과 악행을 폭로하려는 의도에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들과 여타 고등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본질적 차이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반종교의 태도가 신에 대한 믿음의 선하고 올바른 측면을 무시하고 은폐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

오로지 신앙으로만 지탱될 수 있는 윤리, 선행, 자기반성의 가치는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마르크스적 종교관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박우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코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신속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원치는 불가능하며 당뇨 합병증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물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킨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2022년 상반기 일정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정령자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학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사적 베스트 셀러, "별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별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좌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제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랍어 수에즈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플렉스내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 땅을 의미합니다. 호렙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이 2월, 3월에는 김승학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야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요르단 (4박 5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오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온천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항이동

두바이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몰, View at the Palm, 속메디나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히잡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엘림



엘리아의 동굴



금송아지 암각화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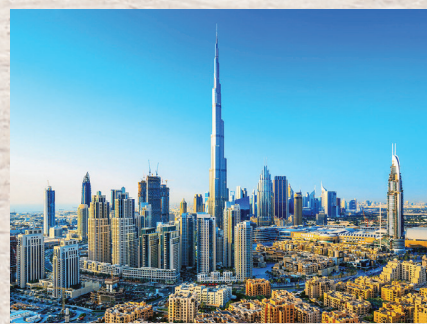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으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갈'이라는 뜻의 희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